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6a9c8a2595ce91b9cf9186b3b9a3710a4537139b5d66c3b91cb83c33708ad9c3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테이퍼링 이외에도 공급 병목 등 4개 위험 요인이 존재

- 미국 연준의 전·현직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의 과소평가를 경고
- 미국 고빈도 데이터,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신호를 발신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기업과 은행부문의 외환 위험을 조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테이퍼링 조기 시행의 우려 완화 등이 영향

주가 상승[+0.4%], 달러화 보합[+0.02%],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 강세와 경제회복 기대 등이 견인
유로 Stoxx 600 지수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소폭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세 등으로 보합
유로화 가치는 보합, 엔화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 영향 지속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연동되며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66.5원, -1.0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8/30일	8/27일	전일대비			8/30일	8/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28.8	4,509.4	0.43%	국채 금리 10y	미국	1.28%	1.31%	-3bp
	유럽	472.68	472.34	0.07%		독일	-0.44%	-0.42%	-2bp
	중국	3,528.2	3,522.2	0.17%	CDS 5y	한국	17bp	18bp	-1bp
	일본	27,789	27,641	0.54%		중국	33bp	34bp	-1bp
	한국	3,144.2	3,133.9	0.33%	위험 지표	EMBI+	-	356	-
환율	달러지수	92.71	92.69	0.02%		VIX	16.19	16.39	-1.22%
	유로화	1.1797	1.1795	0.02%		WTI유	69.21	68.74	0.68%
	엔화	109.92	109.84	-0.07%	원자재	구리	436.1	431.9	0.98%
	위안화	6.4667	6.4720	0.08%		금	1,810.3	1,817.6	-0.40%
	원화	1,167.0	1,169.2	0.19%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경제, 테이퍼링 이외에도 공급 병목 등 4개 위험 요인이 존재

-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로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3/4분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도 경계할 필요. **첫째**, 공급 병목.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이 계속될 가능성
- **둘째**, 8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통화정책 전망이 바뀔 수 있으며, 고용목표 달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병존. **셋째**, 재정정책 관련 갈등. 의회 내 양당 주장의 괴리가 크며, 이로 인해 예산안 통과 지연 및 정부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제기
- **넷째**, 델타 변이의 지속.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여전. JP Morgan의 Joseph Lupton은 델타 변이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하반기 성장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의 전·현직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의 과소평가를 경고

-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물가 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 일부 물가상승 요인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상당 기간 목표치인 2% 이상에서 지속할 수 있다고 부연
- 제프리 래커 전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최근의 고물가 현상이 연준의 기대와 달리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통제 불가능의 국면에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고빈도 데이터,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신호를 발신

- 최근 공항 이용자 수, 식당 좌석 점유율, 호텔 객실 예약률, 구인광고 건수 등이 감소.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소비자들의 지출 의욕이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

■ EU 집행위원회, 미국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인 유럽여행 제한 재개 검토

- 미국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자체 설정 안전수준(8/14일 기준 10만 명당 75명)을 넘어 10만 명당 300명 선까지 늘어남에 따라 작년 6월 철폐했던 미국 여행자의 비필수적 유럽여행 제한 재개를 검토 중(following a review)

■ 독일,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4% 상승해 13년래 최고치

- 경기회복,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과 작년 일시적 요인(부가가치세 인하와 유가 급락) 등에 의한 기저효과가 배경. Commerzbank의 Ralph Solveen, 향후 수 개월간 4.5~5%까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으나 내년에는 반락 예상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의 미래는 금융여건 고려할 필요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해당 프로그램은 매월 자산매입 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에 종료 여부를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 또한 6월 이후 역내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되었다고 평가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기업과 은행부문의 외환 위험을 조사

- 다양한 부문의 기업이 외환 노출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헤지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의 이유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추측
- 한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형 펀드의 불법적인 운용과 과대선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발표. 또한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개선하겠다고 약속

■ OPEC+, 기존의 감산 완화 계획을 유지할 전망

- 관계자들에 따르면, 9/1(水) 예정된 회의에서 OPEC+ 국가들은 지난 번 합의한 것과 같이 매월 일일 40만배럴 감산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잠정주택판매(전월비): -1.8%, 6월(-2.0%), 예상치(0.4%)
-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경기지수: 9.0, 7월(27.3),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8/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시카고 PMI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중국 8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대규모 기업부채, 투자자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re is a huge amount of corporate debt, and that might be OK)
 - 미국의 기업부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이상 증가로 오랜 기간 큰 폭 상승. 이에 기업 자금조달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이익 증진 효과보다 위기 시 금융스트레스 측면이 부각, 향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
 - 그러나 BofA의 Hans Mikkelsen은 기업의 이익성장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 가치 증가 및 자산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부채 위험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 반면 금융시장의 혼란 시 자본가치 급락 등 위험요소도 내재
-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과소평가하기에는 위험요소 잠재 - 블룸버그**
(Higher Prices Are Here, Whether or Not You Call It Inflation)
 -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쟁점은 수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지 여부. 연준은 변동성이 큰 제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추세를 주시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물가가 큰 폭 상승한 이후 반락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임금상승과 함께 내년 6% 이상의 생활비 조정을 반영하여 공격연금 지급액도 증가 예상. 이와 같은 요인들로 소득증가 폭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소득증가 불구 구매력은 악화될 가능성
- **시진핑의 민간기업 규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력 부재를 반증 - Financial Times**
(George Soros: Investors in Xi's China face a rude awakening)
-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승인, 예산 등 비용 추정치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필요 - WSJ**
(The Debt Ceiling Provides a Moment of Truth)
- **연준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시장의 우호적 반응과 달리 위험요소 다수 내재 - 블룸버그**
(Fed's Powell Cheers Markets But Risks a Mistak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